

 SEOUL OLYMPIC  ARTS FESTIVAL

EAST-WEST
CONTEMPORARY
CERAMICS
EXHIBITION

동 서 현 대 도 예 전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EAST-WEST CONTEMPORARY CERAMICS EXHIBITION

동 서 현대 도 예 전

1988년 9월 10일~10월 9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주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 스페인대사관 / 프랑스대사관 / 이탈리아대사관 / 일본대사관 / 스웨덴대사관
미국대사관 / 영국문화원 / 한국방송공사 / 동아일보사

협조: 스페인외무성 / 프랑스예술활동협회(외무성) / 영국문화원(런던) / 이탈리아외무성
일본국제교류기금 / 스웨덴외무성 / 에버슨미술관(미국)

September, 10–October 9, 1988 ART CENTER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ORGANIZED BY: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SUPPORTED BY: THE EMBASSY OF SPAIN / THE EMBASSY OF FRANCE / THE EMBASSY OF ITALY / THE EMBASSY
OF JAPAN / THE EMBASSY OF SWEDEN /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BRITISH COUNCIL, KOREA /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 THE DONG-A ILBO

WITH COOPERATION FRO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AIN / AFAA—MINISTRY OF FOREIGN AFFAIRS, FRANCE / THE BRITISH
COUNCIL, LONDO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ALY / THE JAPAN FOUNDATION / THE SWEDISH
INSTITUTE / THE EVERSON MUSEUM, U.S.A.

SPONSORED BY:  三星 SAMSUNG

추진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이 용 권 LEE, Yong Kwon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부원장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권 순 형 KWON, Soon Hyung

도예가/ 서울대학교 교수
Ceramic Artis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유 근 준 YOO, Keun Joon

평론가/ 서울대학교 교수
Art Critic/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조 정 현 CHO, Chung Hyun

도예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Ceramic Artist/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신 상 호 SHIN, Sang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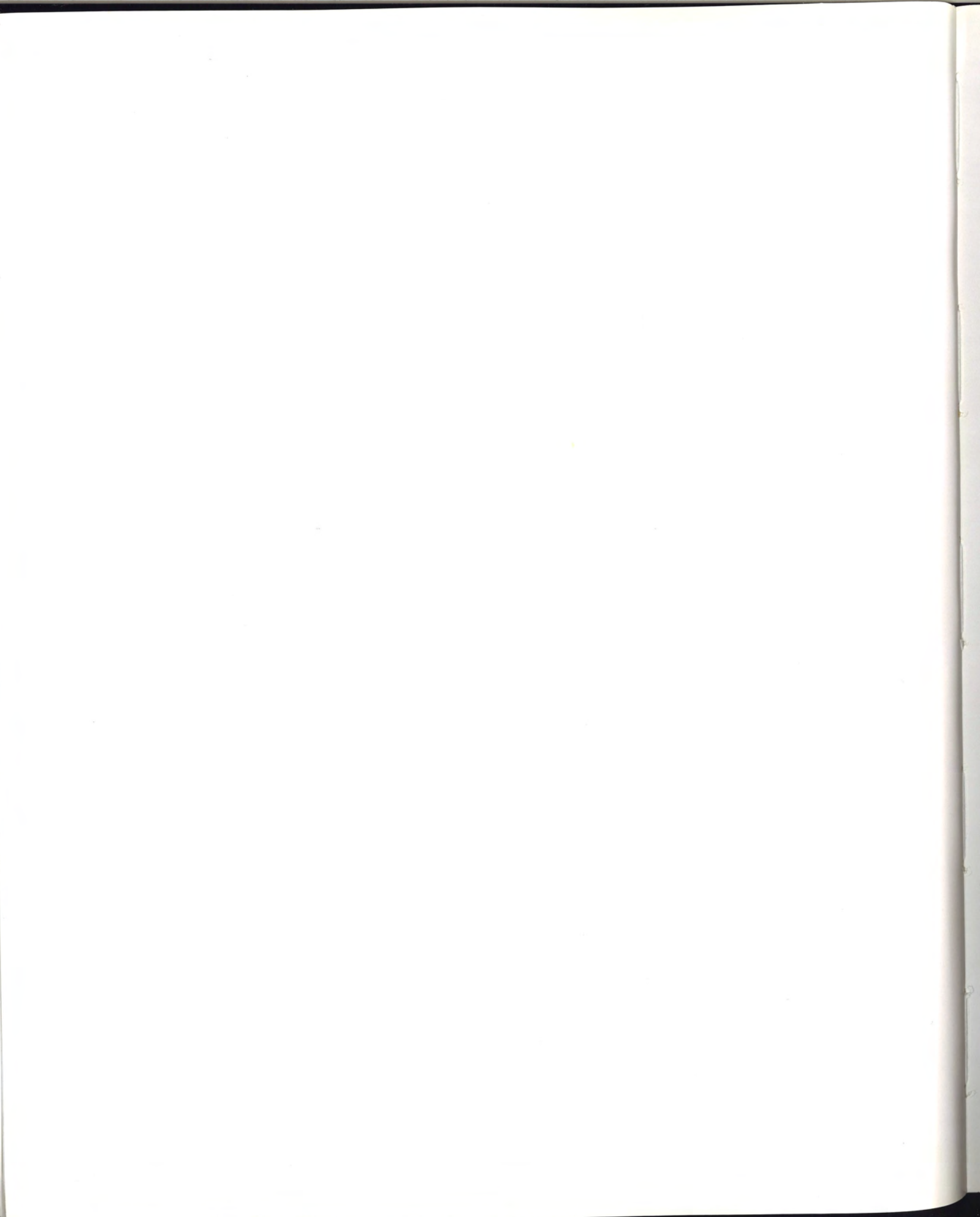
도예가/ 홍익대학교 교수
Ceramic Artist/ Professor, Hongik University

목 차

● 인사말-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서기원	5
● 축 사: 문화공보부장관, 정한모	7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박세직	9
● 동서현대도예전 개최에 즈음하여-추진위원회	11
● 출품작가 약력 및 도판	
스 페 인	15
프 랑 스	37
영 국	61
이탈리아	83
일 본	97
스 웨 덴	123
미 국	143
한 국	185
● 작품 목록	
스 페 인	240
프 랑 스	240
영 국	240
이탈리아	241
일 본	241
스 웨 덴	242
미 국	242
한 국	243
● 각국현대도예의 개요	
스페인 도자기의 현재와 미래-로사리오 데카소	248
오늘의 프랑스 도예가-엘리자벳 풍땅	249
영국의 도자예술-앵거스 서티	250
서울에온 6인의 도예가-이탈리아-질로도르프레스	251
일본의 도자기-혼마 마사요시	252
스웨덴 도자기의 오늘-헬레나 달백 루테만	254
미국의 현대도예-바바라 페리	255
한국도예의 어제와 오늘-이 윤신	255

CONTENTS

· Greetings : SUH, Ki Won, President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5
· Congratulations : CHUNG, Han Mo, Minister of Culture and Information	7
Park, Seh Jik, President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9
· Introduction : Organizing Committee	11
· Biographical Data	
Spain	15
France	37
Great Britain	61
Italy	83
Japan	97
Sweden	123
U. S. A.	143
Korea	185
· List of Works	
Spain	240
France	240
Great Britain	240
Italy	241
Japan	241
Sweden	242
U. S. A.	243
Korea	243
· Outline of Contemporary Ceramics i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of Spanish Ceramics	
- Rasario DeCasso	248
French Potters Today - Elizabeth Fontan	249
British Ceramics - Angus Suttie	250
Six Ceramists for Seoul - Italy- Gillo Dorfles	251
Japanese Pottery - Masayoshi Honna	252
Swedish Pottery Today - Helena Dahlbäck Lutteman	254
American Ceramics Now - Dr. Barbara Perry	255
Ceramic Art of Korea :Yesterday and Today	
- RHEE, Yoon Shin	255



인 사 말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으로 개최하는 동서현대 도예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고자합니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막이 오른 이번 문화예술축전은 호스트인 한국을 비롯한 많은 올림픽 참가국들의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예술의 각 분야에 걸쳐 매우 다채롭고 의미깊은 예술의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올림픽의 정신이 인종과 국적을 넘어 인류애와 상호 이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번 88문화예술축전의 의의도 여기에 꼭 들어맞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디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느나라의 것이건 개성있는 훌륭한 예술은 사람과 사람들의 가슴을 통해 서로 이해되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세계인이 참가하는 예술의 한마당으로하여, 더욱 그 정신과 가치가 빛나고 전인류가 하나의 지구촌의 이웃임을 깨닫게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 문화예술의 잔치를 마련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선된 한국의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세계에 널리 보여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 도예는 가장 오래된 인류문명의 한 표상이며, 예술의 시원적인 형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흙과 불의 예술제인 동서현대도예전은 인간과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알려주는 뜻깊은 신호이며 예술을 통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이번 축전에 참가하시는 국내외의 예술인과 축전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쓰신 관계인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서 기 원

Greetings

It is with great pleasure and joy that I welcome you to the East-West Contemporary Ceramics Exhibition, included as a part of the Seoul Olympic Arts Festival 1988.

In this Arts Festival preceding the Seoul Olympic '88, artists from many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Olympic Games along with the artists from the host country Korea will present a festival of the arts that has variety and great significance.

The Seoul Olympic Arts Festival indeed faithfully represent the spirit of the Olympic Games, which pursues peace and progress through love and understanding transcending race and nationality.

Art knows no boundaries. Whatever its origin, an excellent piece of art never fails to move people and win their understanding. The Art Festival with its world-wide participation will make the Seoul Olympic Games a more significant and important event that will make everyone see they are all neighbors in the world community. For her part, Korea is very proud to host this festival and is making her best effort to present before the world the best of its traditional and modern art.

By nature, ceramic art has been the oldest symbol of civilization of mankind and the inceptive form of the art.

In this context, I believe that this East-West Contemporary Ceramics Exhibition, the art festival of clay and fire, will be a fresh remind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the arts and also a message of love and peace through the arts.

I would like to end with my sincere thanks and appreciation for the participating artists, both Korean and from abroad, all those who have helped to bring the Seoul Olympic Arts Festival before us.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President Suh Ki-won



축 사

고대로부터 올림픽에서 체육경기에 못지않게 문화행사를 중요시 해온것은, 올림픽의 참된 정신이 인류의 화합과 평화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개최권 획득은 물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온갖 슬기와 정성을 기울여온 것도 바로 이땅에서 세계평화의 새 장을 펼쳐 보이고자 하는 뜻에서 었습니다.

옛부터 학예를 숭상하고 평화를 사랑해온 우리 민족이 분단의 고통을 딛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이땅에 평화통일의 새 기운을 진작시키고 동서 화합의 일대 계기를 이루고자 하는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수하고 독창적인 전통문화와 수준높고 다양한 현대예술을 조화시킨 다채로운 공연, 전시행사를 통해 전세계 인류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큰 관심과 감흥을 북돋우어 국제적 문화 교류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는 한편, 안으로는 이를 문예중흥의 활력소로 승화시키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의 아름다운 이상으로 인간을 긍지롭게 하고 황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의 영광과 환희가 문화예술축전의 만개한 아름다움에 의해 한층 더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볼 때,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에 참여하시는 국내외 문화예술인 여러분이야말로 스포츠 선수에 못지않는 대회성공의 주역이요, 세계평화의 기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축전에 직접 참여하시는 모든 예술인들과 이 축전을 준비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축전을 관람하심으로써 진정한 예술의 성숙을 함께하신 관람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온 세계의 평화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공보부 장관
정 한 모

Congratulation

Since ancient times, cultural events have been a no less important component of the Olympiad than sports. This has been in keeping with the true ideal of the Olympics: harmony and peace of mankind.

We strove hard to secure the privilege to host the Olympics and have devoted our all to ensuring the success of the Summer Games in Seoul because we aspire to open in our own land a new era of world peace. The Korean people, who have traditionally valued learning and art and loved peace, have triumphed over the pain of territorial partition and the horrors of a subsequent fratricidal war, and are now united in the resolve to successfully stage the Seoul Olympics with the goals of bringing the East and the West together, while at the same time generating a new momentum towar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nection, we have prepared colorful programs of performing arts and art exhibitions intended to blend our own rich, unique cultural traditions with diverse, sophisticated contemporary arts. The purpose is to arouse keen global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to stimulat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and interaction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powerful impetus for a cultural renaissance at home.

Nothing can make man as proud and joyful as art with its many forms of beauty. I believe that the joy and glory of the 24th Olympiad will be further enhanced by the blessing beauty of the Olympic Arts Festival.

In that sen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arts festival are making no less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success of the Seoul Olympics and the cause of world peace than the participating athletes.

My thanks go to all the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to all those who have prepared it and the audience who will make it a great experience. May the festival be a time of peace for the entire world.

Minister of Culture and Information
Dr. Chung Han-Mo



축 사

올림픽이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문화예술축전을 시발로 막을 올린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유서깊은 전통입니다. 그들은 운동경기와 더불어 예술축전을 열어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인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단련, 예술활동을 통한 정서의 함양, 학술활동을 통한 지성의 연마라는 세가지 목표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올림픽의 기본이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술분야는 체제나 이념,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인류를 공통의 감동으로 묶어주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또 올림픽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세계평화는 예술세계의 순수함과 정열, 그리고 진지함이 포함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문화의 올림픽”에 역점을 두고 문화예술축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행사 추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추진위원회 여러분들, 각국 주한대사관, 그리고 예술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박 세 직

Congratulation

The fact that the Olympic Games was originally not only an athletic contest but also culture and arts festival, gives us occasion to ponder the Olympic ideal.

This is a historic tradition passed down to us by the ancient Greeks, the originators of the Olympic Games. They held festivals in conjunction with the athletic competition, praising their gods in a celebration of life.

The three goals which constitute the basic Olympic ideals, the cultivation of the intellect through academic pursuits, the fostering of aesthetics through artistic activitie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body through athletic endeavors have remained unchanged through the ages.

The arts, in particular, have the magic ability to break down language and racial barriers, to overcome ideological differences and to bind together the common emotions of mankind. In addition, the purity, passion and sincerity of the art world must certainly be included in the Olympic pursuit of a lasting world peace. This is precisely why the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has emphasized the “Cultural Olympics” and lent its total support to the Culture and Arts Festiv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Seoul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to the embassy staffs here in Korea and to the artists for their efforts to promote this festival.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President Park Seh - jik



“동서현대도예전” 개최에 즈음하여

추진위원회

현대 올림픽은 물론이고 고대 올림픽에 있어서도 육체적 힘과 기를 겨루는 체육행사와 더불어 여러가지 문화행사도 개최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 삶의 목적이 건전한 정신과 육체의 균형, 조화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인류공통의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서울 올림픽행사에 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을 기획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서현대도예전”은 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일환으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추진하여 한국을 비롯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미국 등 8개국에서 105명의 최근작품 156점이 전시되는 국내의 초유의 국제도예전으로서 그 질적 수준 또한 최상이 될 것으로 믿고있다. 이는 국내의 도예관계인사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결집된 결과인 것이다.

도자예술은 흙의 예술이며 흙은 인류문화의 기원인 것이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 흙의 문화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기쁨과 꿈을 키워나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흙의 예술인 도자는 수천년을 이어오는 동안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생활용기의 주된 흐름에서부터 다양한 분화현상을 거쳐왔다. 그럼으로써 전통성을 유지하며 현대성에 기인하는 도자형태와, 전통과 인습에서 탈피하여 작가의 순수한 표현수단으로서의 조형작업등 커다란 두개의 경향이 오늘날의 도예 상황이다. 맥루한의 지구촌이라는 어휘를 빌지 않더라도 오늘의 사회는 과거와 비교하여 지리적, 역사적으로 축소되어 세계각국이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어, 상호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문화적 상황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공간의 확대와 고도화된 산업기술과 정보체제, 광범위한 이미지 등으로 주제선택이 자유로운, 그 어느때보다도 좋은 환경을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도예의 창조와 수용의 과정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다양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건강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가의 입장에서 볼때 자신의 영역을 설정하고 규범을 확립해야 하는 개별적 책임이 압박감을 극복해야 할 하고 수용자의 향유과정에서 볼때, 창조작업의 다양한 작업 결과에 대하여 가치판단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 그 부정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계문화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한국의 현대도자예술이 새로운 규범을 필요로 하는 지역적 특성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도자예술은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여 새로운 도자문화를 창조할 것인가하는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 올림픽문화예술축전의 하나인 동서현대도예전을 개최하게 된 것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의의가 있으며 동서양의 조형적 이질성과 동질성을 한자리에 펼쳐 보임으로써 오늘의 도자예술의 위상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는데 그 뜻이 있다. 이번 행사가 현대도에 발전에 큰 획이 되리라 믿는다.

The East - West Contemporary Ceramic Exhibition

Organizing Committee

Even in the Olympics of the ancient times, let alone of the recent ones, it is said that a variety of cultural events had been held in parallel to sport events of physical contest. This must have derived from the perception common to humankind that the ultimate goal of life pursued by mankind seemed accomplished only in harmony and equilibrium of mind and body. Therefore, it should be natural that a variety of events under the planning of the Olympic festival of culture and arts be held on occasion of the Seoul Olympic Games.

Against this backdrop, the East-West Contemporary Ceramics Exhibition is a project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within a frame of the Olympic Arts Festival. This is the first international ceramic art exhibition, both at home and abroad, with 156 pieces of recent works by 105 ceramists from eight nations, Korea, Spain, France, Britain, Italy, Japa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It is believed that this exhibition must be superb in its level and quality. This exhibition comes out of the deep understanding and interest of those involved in the ceramic arts both at home and abroad.

Ceramic art is an art of clay, an art found at the origin of human civilization.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any nation, of any country, has lived in the culture of soil, nourishing their delight and dream. Ceramics, as art of soil, have undergone a variety of differentiation from the main utility of the past, as living utensils, corresponding to the change in time and in society over the span of many thousand years. Thus, the two main trends in ceramics today are a concern with tradition with an eye for the contemporary, and an outlook to see it as a pure expressive form of plasticity for each ceramist stepping over the frame of tradition and convention. With no need of quoting the concept of McLuhan's "global village" the current cultural situation witnesses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chord of empathy in a close relation of mutual exchanges overcoming the barriers of geography and ideology. At the same time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distance among societies of the world has shrunk.

Expansion in space and time, highly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information systems, wide-ranged images and symbols now provide an optimal environment more than ever before, allowing a free choice of subject matter. Emergence of such an environment has called for a variety of innovative changes in the course of creation and accommodation of ceramic art. As a result, this development seems to carry a positive meaning, in that social wholesomeness can be thus manifested. However, a negative aspect arises in that each ceramist has to overcome the sense of burden that comes from an obligation to delineate his or her own domain, to set their own norm. For spectators or users of contemporary ceramics, value judgment may undergo bewilderment as to outcome of these creative works.

It is also important for contemporary ceramic art of Korea to set its own new norm as regards its geographical position, while sensitively responding to the worldwide flow of culture. In other words, ceramic art of Korea now faces an immediate task of what to pursue and how to create a new ceramic culture in a liberal environment. In this sense, the opening of East-West Contemporary Ceramics Exhibition, in a frame of the Olympic Arts Festival in Seoul, is meant to help acknowledge and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geographical traits and status of ceramic art of today, and in turn, its possibilities for tomorrow. It is believed that the current occasion will mark an epoch in the progress of contemporary ceramic art.

범 례

1. 이 카탈로그에 수록된 자료는 한국어외의 나라는 각국 추진기관에서, 한국은 각 작가가 제공한 자료를 기본으로 했다.
2. 참가국의 순서는 각 NOC 공식명칭을 알파베트 순으로 하고 주최국인 한국은 후순으로 했다.

스 페 인
프 랑 스
영 국
이탈리아
일 본
스 웨 덴
미 국
한 국

3. 참가국중에서 작가의 순서는 각국에서 제공된 자료의 순으로 하였으며 한국은 연령순으로 했다.
4. 작가의 경력난은 제공된 자료를 모두 수록하지 못하고 조정했으며 부족한 작가는 각종자료를 조사 보완했다.
5. 작품규격의 단위는 "cm"로 하고 표기의 순은 「가로×세로×높이」로 단, 폭과 높이만 제공된 작품은 「폭×높이」로 표기했다.

Explanatory Notes

1. Essays and articles printed in this catalog have been provided by the respective countries' commissioners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 articles of Korean artists are based on the materials submitted by the respective artists.
2. Countries are listed according to the alphabetical order of official names used by NOC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 Korea has been listed as the host country.

Spain
France
Great Britain
Italy
Japan
Sweden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

3. Guest artists are listed according to the order in the list submitted by their respective countries' commissioners ; Korean artists are listed by age.
4. Biographical data of guest artists have been selected from materials submitted to the Organizer ; data on some artists have been supplemented from the Organizer's own reference materials.
5. The dimensional unit is given in "cm" in order of "WidthxHeightxLength" ; "Width x Height" for works whose dimensions the artists have so indicated



엘레나 콜메이로
ELENA COLMEIRO

1932 : 실레다 출생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도예 연구, 페르난도 아란즈 교수 사사
1968 : 후앙 마르쉬 재단 보조금 샌프란시스코 밀스대학 유학, 오크랜드,
샌프란시스코

개인전

1954 : 밀러 화랑전, 부에노스 아이레스
1955 : 국제화랑, 비고
1968 : 인터내셔널 화랑, 부뤼셀
1969 : 새 이미지 전, 라하야
1970 : 예술총국, 마드리드
1985 : 시청문화국, 비고

단체전

1969 : '선사시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스페인 도예' 우르카이 비엔날레,
마드리드
1972 : 스페인 현대미술관, 마드리드
도자기 국제전, 빅토리아와 앨버트 미술관, 런던
1979 : 12인의 도예가전,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1980 : 국제 도자전, 교토
1982 : 국제 도자 아카데미, 부다페스트
1986 : '조형적 표현으로서의 도자기' 상멜라마 재단, 상멜라마 델마르

소장

마드리드 현대 스페인 미술관
파엔자 미술관
유럽과 미국의 컬렉션
제네바 아리아나 미술관

1932 Born in Silleda, Pontevedra
Studied Buenos Aires, under professor Fernando Arranz
1968 Juan March Foundation's Scholarship to study abroad at Mills College,
Okland, San Francisco, U.S.A

Selected One Man Shows:

1954 Müller Gallery, Buenos Aires
1955 Fraga Gallery, Vigo
1968 International Gallery, Bruselas
1969 Show of New Images, La Haya
1970 Madrid Art Agency, Madrid
1985 Culture Department of City Office, Vigo

Selected Group Shows:

1969: 'Spanish Ceramics from Prehistory to Today' Uruguay Biennial, Madrid
1972 Contemporary Art Museum of Spain, Madrid
International Ceramics,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1979 12 Ceramists Exhibition, Valencia, Barcelona, Madrid
1980 International Ceramics, Kyoto, Japan
1982 International Ceramics Academy, Budapest
1986 'Ceramics as Plastic Expression', Santillana del Mar

Collections:

Contemporary Art Museum of Spain
Faenza Museum, Italy
Collections of Europe and America
Ariana Museum of Geneva



도자 1 · 내화점토 · 82×50 · 1987
Ceramic No1 · Fire clay · 82x50 · 1987



도자 2 · 내화점토 · 170×80×40 · 1986
Ceramic No2 · Fire clay · 170x80x40 · 1986